

설교노트 “사명으로 승리하는 삶” (마태복음 4:1-11)

들어가는 말

우리 삶에는 ()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상대주의 이론에 심취해서 모든 것이 다 상대적 이라며 절대 기준을 부인하려고 해도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은 분명히 존재한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기준이 있으셨다.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셨다.

본말

소명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calling 이라고 한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사명은 영어로 mission이라고 하는데 소명을 받은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나 ()을 말한다. ‘사명’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주님 오심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었다.

사명을 완수했는가 못했는가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과 실패와는 전혀 다르다. 복음사역도 예외가 아니다. 스테반은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사역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스테반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뿐이다. 1866년에 복음을 들고 조선을 방문했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도 역시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 사명이 분명하면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명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은 사명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명은 본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보다 더 중요하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공하심을 믿어야 한다. 사명이 분명하면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 수 있다.

맺는말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초월했을 뿐 아니라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목상질문

1. 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 혹시 사명을 알면서도 사명자의 삶을 살기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Since 1975

2022년 3월 6일



수요일예배

장년 한어예배 7:00PM / 본 당
 장년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00PM / 안디옥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6:00AM / 본 당
 영어부 화-토 6:00AM / N-202

주일예배

장년 한어예배 1부 7:40AM / 본 당
 장년 영어예배 2부 9:20AM / 본 당
 장년 한어예배 3부 11:00AM / 본 당
 사랑부 예배 (장애인) 1:00P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나사렛
 11:00AM / 베들레헴

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담임목사 송 경 원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데이케어 253.535.9433 | 기도원 253.847.2250

YouTube tfbc



주 일 예 배

- * 경배와찬양 1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 “예배합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3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린 쉬지 않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 대 표 기 도 1부: 이성훈 집사/ 3부: 백동선 집사
- 봉 헌 찬 양 1,3부: 361장 “주의 주실 화평”
- 공동체소식 인도자
- * 성 경 말 씀 마태복음 4:1-11
- 설 교 제 목 “사명으로 승리하는 삶”
- 말 씀 선 포 송경원 목사
- * 응 답 찬 송 1,3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 축 도 송경원 목사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수요성령예배		예 배 위 원	
찬양과기도	수요찬양팀	이	1 부: 이성훈 집사
대 표 기 도	명숙헨리 집사	번	3 부: 백동선 집사
제 목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주	수요: 명숙헨리 집사
성 경 말 씀	느헤미야 9:1-10	다	1 부: 정자열프 집사
말 씀 선 포	송경원 목사	음	3 부: 김선 집사
		주	수요: 미나리베라 집사

드려진 예물

공동체소식

-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안내팀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본당. 느헤미야 강해설교 “Arise, Rebuild”
수요예배 때 주차장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교회 건물(신관, 교육관, 구관) 뒷편에 주차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기간(3/2~4/13)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 제작회: 3/6(오늘) 오후 1시, 본당
안전: 교회 보수 공사 승인 건, 데이케어 그랜트 사용 승인 건, 사랑부 운영 건
※ 제작회에 참여하는 제직들을 위해 3부예배 후 체육관에서 빵을 나눠 드립니다.
- 청지기 돌봄지기 모임: 3/12(토) 오전 7:10, 성가대실
- 일광 시간 절약(썸머타임) 시작: 3/12(토) 오후 9시를 10시로 맞추어 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선택: 3/12(토) 부터 주정부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따르겠으며, 교회 내 거리두기와 방역도 중단합니다.
- Intergeneration Worship: 3/18(금) 오후 7시, 안디옥. (찬양: 유스청년팀, 설교: 담임목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영어로 진행)
-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코이노니아
(1) 3040 코이노니아: 3/19(토) 오후 12시-3시, 30-40대 교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식사와 택아를 제공합니다. 로비 신청서에 사인업하시기 바랍니다. (한어로 진행)
(2) 청년 코이노니아: 3/20(주일) 오후 1시, 한어청년부/영어청년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식사를 제공합니다. (영어로 진행)
- 2022년 하나님의 VIP 1기 개강: 4/3(주일) 오후 1:15, 새가족환영실
하나님의 VIP는 새가족을 위한 교회등록 기본 프로그램(4주간 진행)입니다.
로비 신청서에 사인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아 제공합니다.
- 개인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나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심방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사역자와 학생부 사역자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청빙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정헌금: 지정하신 헌금은 미주한인 침례교 총회 파송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 피난민들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헌금” 이라고 써 주세요)

교우동정

소 천: Paul Tlusty 2/28(월) 소천. (아내: 분순 틀러스티).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병: 정성구 성도(쿠웨이트)

중 보: Gregory Moore, Mack Horne, Carly Elliott, Bruce Fehling, Rick Dollar, Leah An, William Ellis, Wilbur Moore, Mike Moore, Willie Buggs, Clarence Turner, Eric Mose, William Dungey, Ken Adkins, 오순자, 강희정, 김호중, 박지영, 이충성